『젠더와 문화』 제11권 1호(2018), pp. 41-77

연구논문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에 나타난 아시아, 자본주의, 신식민주의: 아시아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이소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페미니스트 시인으로 평가받는 고정희의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에 나타난 아시아와 자본주의, 신식민주의의 역사적 관계와 영향을 분석하여 고정희를 "아시아의 페미니스트 시인"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고정희는 필리핀 체류 이후 전 지구적 규모로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신식민주의를 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읽어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밥과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26편의 시이다. 고정희는 아시아 밥상문화의 평등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가 겪어온 식민주의, 자본주의, 신식민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여성주의 시각의 핵심을 아시아 여성의 삶과 수난에서 찾게 되기를 열망했던 고정희는 식민 역사의 지배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 민중 여성들에게 깊은 공감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힘차게 나아가는 아시아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과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고정희, 밥, 아시아, 자본주의, 신식민주의

---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1317).

** 한양여자대학교 실무영어과 교수(shlee@hywoman.ac.kr)

ⓒ 2018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DOI - https://doi.org/10.20992/gc.2018.6.11.1.41

1. 고정희, 필리핀, 아시아

지금까지 발표된 고정희 관련 연구는 매우 다양한 주제로 풍성하게 진행되어왔다. 43년이라는 짧은 생애동안 총 11권의 시집을 발간할 만큼 열정적인 시인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그의 시적 성취가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을 만큼 놀랍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고정희는 한국문학사에서 빛나는 문학작품을 남긴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태동 시기에 "신문학 사상 최초로 기획된 기획 작품집"인 '또 하나의 문화'[1] 동인지 3호 『여성해방의 문학』을 기획, 편집함으로써 실제로 한국 여성해방의 문학을 견인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또 하나의 문화, 1987: 13). 또한 고정희는 한국 작가로서는 드물게 1990년 9월부터 1991년 2월까지 필리핀 정부 초청으로[2]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종교음악연구소〉에서 아시아의 시인 및 작곡가들과 함께 "탈식민 시와 음악 워크샵"에 참가하였다. 이 6개월간의 마닐라 체류는 고정희에게 아시아의 식민역사 및 신식민 상황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고정희는 1990년 8월 마닐라로 떠나기 직전에 발간한 『여성해방출사표』(1990a) 서문에서 자신은 "여성주의 시각의 핵심을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아 여성들의 삶과 수난에서 찾으려하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태평천국 당시 3천만의 여성이 만리장성에 참여해 서른만이 살아남은 중국의 해방전선 여성들을 통해 동양 여성해방 운동의 뿌리

1) 이 글에서 '또 하나의 문화' 표기는 동인모임을 뜻하며 연속간행물로서의 잡지명이 아니다. 동인모임 '또 하나의 문화'에서 발행하는 동인지는 단행본으로서 주제별로 각각 다른 제목을 갖고 있다.

2) 소설가 박완서는 고정희가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에 진행했던 작가 탐방 인터뷰가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를 초청한 필리핀 정부에서 주는 돈이 너무 적지만 그 나라에선 큰 돈이란 얘기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걱정들 할 얘기는 무궁무진했다"고 적고 있다(1993: 241).

를 보게 된다"고 말하면서 아시아 여성들의 역사와 여성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러므로 자신도 "지금까지 내 삶의 집착이며 애증의 토대였던 이 땅과 잠시 이유기를 갖는 일이 중요한 의미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맘 간절하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1990a: 6-7). 이 때 고정희가 말한 "중요한 의미로 승화될 수 있기"는 결국 그의 유고시집에 수록된 시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페미니스트 시인"으로 확장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당시 함께 일했던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 역시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갖기 위하여" 그에게 필리핀 행을 적극 권하였다(조옥라, 1993: 253). 필리핀에서의 체류는 고정희의 페미니스트 시인으로서의 자아를 한국으로부터 아시아, 구체적으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로까지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이 가부장제,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에 의해 억압받아온 역사를 다양한 형태의 시로 발표하였다.

필리핀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이며 식민지배 종주국인 스페인, 미국, 일본은 16세기 이후 각기 다른 팽창 지향 시대의 제국이었다. 1565년 이후 333년 동안 필리핀을 식민 통치한 스페인의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식민 정책은 피식민지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의도적으로 우매한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었다. 미국은 스페인 통치와는 대조적으로 회유책을 써서 필리핀을 통치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립학교 제도를 통해 영어를 보급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약 50여년에 걸친 미국의 식민 지배가 오늘날 필리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은 상처를 남긴 주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적 수탈에 기인한다. 표면상으로는 필리핀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 미국의 식민 정책은 필리핀 민중의 경제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따라서 1946년 7월 4일 필리핀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필리핀의 피식민 지배역사는 매우 길고 복합적이다. 오늘날

필리핀의 현실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식민 통치를 벗어났지만 또 다른 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종속인 신식민적 현실로 뒤바뀌게 되었다. 연점숙은 이러한 식민역사의 결과로 탄생한 필리핀 문학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축은 "탈식민과는 거리가 먼 식민 혹은 신식민 현실에 대한 대응의 기록"이라고 주장하였다(연점숙, 2006: 111).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민중'과 '여성'을 껴안고 씨름해온 고정희의 필리핀 여행은 자본주의와 신식민주의의 폐해가 아시아 민중,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여성', '민중'들에게 어떠한 폐해를 끼쳐왔는가를 여실히 목격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가 바로 이에 대한 고정희의 반응이었다. 그러므로 고정희의 필리핀 여행 보고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연작시는 "아시아 민중 여성의 수난사"라는 부제를 붙일 만한 작품이다. 이 연작시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고정희가 아시아인들의 주식인 '밥'을 서구유럽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아시아인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식민주의가 작동한다. 『광주의 눈물비』(1990b) 이후 고정희의 시세계에서 '밥'이 지니는 의미는 특별하다. 『광주의 눈물비』 제2부 「눈물의 주먹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어머니 하느님"과 민중을 연결하는 매개체는 바로 "주먹밥"이다(이소희, 2013: 222).[3] 이 때 매개체가 된 "눈물의 주먹밥"은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와 신식민주의의 체제에서 억압받는 아시아 민중을 연대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고정희의 창조적 자아는 "광주 주먹밥"으로부터 아시아를 "식사의 연대"에 기초한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내는 시적 상상력으로 확장해 갔으며 그 점에서 이 연작시는 더욱 큰 설득력과 강한 호소력을 갖는다.

---

3) 고정희의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어온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은 "어머니 하느님"이라는 매우 혁신적인 상징기호에서 닻을 내렸다. "어머니 하느님"은 고정희의 시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수유리(기독교), 광주항쟁(민중), '또 하나의 문화'(여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고정희의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가 도달한 지점의 형상화이다.

2. 함께 밥을 나누는 아시아의 평등문화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의 첫 번째 시는 〈민중의 밥〉이다. 고정희는 "여성"보다 "민중"에 대한 개념이 먼저 형성되었으며 민중을 억압하는 특권층과 제국주의 세력에 대하여 항상 분노하고 저항하였다. 〈민중의 밥〉에서는 제국과 식민지의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밥"을 매개로 하여 표현되고 있다. 화자가 바라본 "빼앗긴 나라" 식민지에서 "밥"의 역할은 "가난한 백성의 쇠사슬"이며 "민중을 후려치는 채찍"이다. 비록 필리핀이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식민화된 상태이며 이곳에서의 "밥"은 "죄 없는 목숨을 묶는 오랏줄"이 되고 "영혼을 죽이는 총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피폐한 식민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면" 빼앗긴 나라의 "민중의 밥"은 평등, 평화, 해방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때 "밥"은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고 "하나되는 성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화자의 희망, 즉 "이제 그날이 오리라, 여기/ 그 나라가 오리라, 기다림"은 결국 "목마르네 목마르네 목마르네"와 같은 반복 어구를 통해 화자의 간절한 희망을 투영한다.

현재 시점에서 식민화된 현상에 대한 진단은 두 번째 시 〈아시아의 아이에게〉에서 아시아의 식민 역사가 과거로부터 미래로까지 이어지는 "밥과 미끼"가 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고정희의 시세계에서 역사는 세상을 인식하는 중요한 축이며 특히 억압의 역사를 형성하는 역사적 맥락을 재해석 하는 과정과 전체 사회구조를 보는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꼽고 있다. 고정희는 이러한 인식 체계를 바탕으로 전 지구적 규모로 작동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와 신식민주의를 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읽어내고 있다. 화자가 "아시아의 배고픔을 우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슬픈 이야기"

는 바로 아시아의 식민 역사이다.

>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아엔/ 네 탯줄을 결정짓고/ 네 길을 결정짓는 힘이 따로 있었구나/ 네가 네 발로 걷기도 전에 아시아엔/ 네가 두 손으로 절하며 받아야 할/ 밥과 미끼가 기다리고 있구나(고정희, 1992: 11).

아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두 손으로 절하며" 밥과 미끼를 받아야할 운명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아이에게 "고개를 똑바로" 들고 "아시아의 운동장을 뛰어가려무나"라고 제안한다. 이 때 아시아의 아이가 "고개를 똑바로 든다"는 행위는 더 이상 식민 역사에 휘둘리지 말고 자유롭게 성장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정희의 시세계에 등장하는 "아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지하고 있는 은유이다.[4] 아이가 두 손으로 절하며 밥을 받을 때 "그것은 아시아가 절하는" 것이며 아이가 무릎을 꿇고 미끼를 받을 때 "그것은 아시아가 무릎꿇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네가 숨죽여 고개 숙일 때/ 그것은 아시아의 하느님이 고개 숙이는 거란다"라고 말한다. 즉 아시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아시아의 아이가 "주인님"인 "강도질 나라"에게 절하고 무릎꿇는 것을 "빼앗긴 나라"의 믿음이자 희망인 "아시아의 하느님"이 고개 숙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하느님"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4) 고정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인 '또 하나의 문화'가 지향하는 가치관은 "남녀가 진정한 벗으로 협력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커 나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동인지의 제목도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는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1985)이며 고정희는 이 때 권두시 〈우리들의 아기는 살아있는 기도라네〉를 썼다. 이 시의 구절, "그리움의 태에서 미래의 아기들이 태어나네/ 그들은 자라서 무엇이 될까/ 우리들의 아기는 살아있는 기도라네/ 딸과 아들로 어우러진 아기들이여"는 '또 하나의 문화'가 지향하는 이러한 철학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 너는 이제 자본의 하느님을 버려야한다/ 아아 너는 이제 평등의 밥으로/ 평등의 밥으로 울어야 한다/ 아시아를 깨우는 힘찬 징소리로 징소리로/ 징~ 징~ 징~ 울려 퍼져야 한다(고정희, 1992: 12).

화자는 아시아의 식민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하느님"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이가 담지하고 있는 "아시아의 하느님"을,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자체를 힘차게 깨울 것을 주장한다. 이 때 "아시아의 하느님"이 관장하는 세계에서의 "밥"은 바로 "평등의 밥"이 되어야 한다는 화자의 희망은 독자들에게 "징~ 징~ 징~" 울려 퍼지는 힘찬 징소리의 청각적 효과로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세 번째 시 〈브로드웨이를 지나며〉에서는 "아시아의 하느님"을 핍박하는 "자본의 하느님"이 지배하고 있는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신식민 지배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20세기 초반 필리핀을 지배했던 미국 자본주의에 의한 신식민주의 양상을 "아시아를 좀먹는 하나의 음모", 또 "아시아를 목조르는 합법적 강간"으로 매우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다.

> 지프니 양철지붕 밑에/ 알록달록 새겨놓은 저 암호문이나/ 모든 슈퍼마켓과 대형 백화점에 면밀하게 진열된 양키즘은/ 세계 인민의 기둥서방을 자처하는/ 매판자본의 매춘문화이다(고정희, 1992: 13).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와 아시아를 젠더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즉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는 "세계 인민의 기둥서방" 역할을 자처하며 보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식민지인 아시아에서 작동하고 있는 방식은 "매판자본의 매춘문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페미니스트 시인 고정희의 관점에서 보면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아시아에서 자행하고 있는 경제적 신식민주의의 양상은 극심한 지배와 억압 관계인 "기둥서방"과 "매춘문화"의 관계로 치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 등장

하는 격렬한 시어들, “좀먹는 하나의 음모”, “목조르는 합법적 강간”, “기둥서방”, “매춘문화”와 같은 시어들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식민지에서 합법적으로 약탈해 가는 역사에 대한 고정희 자신의 분노와 저항을 반영한다. 특히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바로 아시아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주의 시각의 핵심을 아시아 여성들의 삶과 수난에서” 찾으려는 고정희에게는 아시아 여성들의 혼을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브로드웨이에서 목격되고 있는 “양키즘”은 “아시아의 추억”이 아니고 “아시안의 우정”도 아니며 “아시아의 역사”는 더더욱 아니다.

고정희는 서구 자본주의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유산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제국주의, 자본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고정희의 인식 체계는 필리핀으로 떠나기 훨씬 전부터 형성되었는데 마닐라에서 구체적인 현장을 맞닥뜨린 후에는 그 폐해로 아시아적 정체성을 잃었다는 점을 직시하게 된다. 그는 1985년 7월 1일 ‘또 하나의 문화’ 동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3세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을 적고 있는데 “제3세계-식민지 경험과 서구 자본주의 지배-왜곡된 사회, 정치, 경제 구조-민중의 압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대체적으로 제3세계에 속하는 국가들은 지난날 서구 자본주의의 식민지였거나 그 강한 영향 아래 있었다는 역사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통치의 결과로 그 사회구조는 봉건적이며 토착적인 정치경제 질서와 이식된 자본주의의 혼합으로 기형적이거나 계층간의 불균형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 결국 제3세계 특질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의 원인과 연원은 서구자본주의의 식민 지배라는 역사적 유산과 관련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제3세계의 자기 각성은 서구 자본주의 영향으로부터 해방, 즉 자신들의 독립성의 유지와 거기

서 비롯되는 각기의 구체적 현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수반하고 있습니다(조형, 1993: 43-44)

그의 편지글을 길게 인용한 이유는 바로 위 구절이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에 나타난 고정희의 인식 체계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그의 인식 체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바로 〈브로드웨이를 지나며〉이다. 고정희는 식민지배 역사를 경험한 제3세계가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독립성의 유지와 거기서 비롯되는 각기의 구체적 현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은 아시아의 아이들이 "자본의 하느님"을 버리고 "아시아의 하느님"을 자신들 안에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이 그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이 시는 앞의 두 시 〈민중의 밥〉, 〈아시아의 아이에게〉와는 달리 희망이 아니라 비관적인 전망으로 끝을 맺는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침투해 오고 있는 신식민지적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보장치가 없는 아시아에서/ 시장마다 번쩍거리는 저 외제 상표는/ 아시아 사람들의 희망이 아니"며 또한 "거리마다 흘러가는 저 팝송가락은 아시아 사람들의 신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키즘의 매판자본은 동아시아의 코코낫과 바나나로 상징되는 "한 나라의 넋을 점령해버린 칼"인 동시에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신식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현상은 "칼자루를 쥔 제국의 음모가/ 종말처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뿐"이라는 절망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와 같이 서구 자본주의와 아시아의 신식민주의가 상호 작용하고 있는 필리핀의 역사를 희망과 비관 사이에서 바라보았던 고정희의 관점은 네 번째 시 〈아시아의 밥상문화〉에 이르러서는 아시아인들의 "아시아 혼을 섞는" 연대의 가능성을 "밥상문화"를 통하여 발견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브로드웨이를 지나며〉에서 볼 수 있는 화자의 날카롭고 격렬한 어조는

부드러운 대화체로 바뀐다. “내가 거처하는 호스 슈 빌리지 아파트”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아시아가 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서로 고픈 배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동상이몽을 확인하게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대저 밥이란 무엇일까요”라고 독자에게 묻는다. “손가락밥”, “젓가락밥”, “마시는 밥”, “칼자루밥”이 그리 대수로운 일 아닐 것 같지만 “이를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밥먹는 모습이 바로 그 나라 자본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한다. 결국 밥상문화는 “그 나라 자본의 얼굴”, 즉 그 나라 자본의 성격 및 특징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밥상의 비밀입니다”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밥상문화 역시 “그 나라 자본의 얼굴”처럼 전 지구적 사회구조 내에서 위계질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 손가락밥 위에 젓가락밥 있습니다/ 젓가락밥 위에 마시는 밥 있습니다/ 마시는 밥 위에 칼자루밥이 있습니다/ 밥이 함께 나누는 힘이 되지 못할 때/ 들어삼키는 힘으로 둔갑하고 맙니다/ 이것이 밥상의 비밀입니다(고정희, 1992: 16)

즉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아시아 침략을 “들어삼키는 힘”으로 비유하면서 밥, 나눔, 지배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밥상의 비밀”이 있다고 말한다. “칼자루밥”으로 비유되는 서구,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아시아의 밥상문화의 특징은 “함께 나누는 힘”이며 이를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상다리밥”이라고 제안한다.

> 밥은 다만 나누는 힘이다, 상다리밥은 마주 앉는 밥이다, 지렛대를 지르고 나서/ 문득 우리나라 보리밥을 생각했습니다/ 겸상 합상 평상 위에 차린 보리밥/ 보리밥 고봉 속에 섞여있는 단순한 땀방울과/ 보리밥 고봉 속

에 스며 있는 간절한 희망사항과/ 보리밥 고봉 속에 무럭무럭 솟아오르는 민초들의 뜨겁디뜨거운 정,/ 여기에 아시아의 혼을 섞고 싶었습니다 (고정희, 1992: 17)

아시아 각국의 밥상문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평등하게 "마주 앉는 밥"인 우리나라의 "상다리밥" 속에서 "보리밥 고봉 속에 무럭무럭 솟아오르는 민초들의 뜨겁디뜨거운 정,/ 여기에 아시아의 혼을 섞고 싶었다"는 시적 언술을 통해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다. 하나는 아시아 민중(민초)들의 연대의 꿈을 암시하며 또 다른 하나는 그 아시아 연대에서의 중심 역할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며 가능성이다. 고정희가 우리나라의 이러한 역할을 꿈꿀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밥상문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즉 "겸상 합상 평상" 위에 놓인 "보리밥 고봉"과 "상다리밥" 문화는 그가 "밥"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 즉 "민초들의 뜨겁디뜨거운 정"을 나누는 밥은 "평등의 밥"이 되어야 하며 "함께 나누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시어들, "지렛대", "보리밥 고봉", "민초"와 같은 시어들은 고정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남도의 농경문화를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러므로 고정희에게 있어서 "밥"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평등"과 "나눔"이다.

여덟 번째로 수록된 시 〈밥은 모든 밥상에 놓인 게 아니란다〉에서는 서구의 음식문화가 아시아의 음식문화를 압도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옆에/ 김치, 들깻잎, 오이 무침"과 "멀고먼 바다에서 건져 올린 왕새우 요리"가 함께 올라온 밥상을 마주한 아이가 "쌀밥보다 먼저 왕새우 요리에 손이 가고/ 밥 대신 햄버거, 숭늉 대신 코카콜라를 찾는" 것을 보고 "이 쌀밥 한 접시에 서려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곡절을 몰라도 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그래서 "밥은

모든 밥상에 놓인 게 아니란다"라고 타이르면서 "밥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밥의 평등성'을 강조한다. 결국 고정희는 "밥"을 통해 지배가 아닌 나눔의 의미를 강조하고 "밥"이 나눔의 의미를 지니지 못할 때 식민 지배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함께 밥을 나누는 아시아의 평등문화에 대한 고정희의 굳건한 믿음은 1980년 5월, 10일간에 걸친 광주항쟁 기간 동안 "주먹밥"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던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나누는 밥"에 기초하여 "평등"과 "해방"의 세상이 열리기를 꿈꾸던 고정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목격한 자본주의의 모순에 분노한다.

3. 자본주의, 신식민주의, 아시아 여성 민중

첫 번째 시 〈민중의 밥〉에서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하녀와 주인님의 관계로 파악한 고정희는 다섯 번째 시 〈하녀 유니폼을 입은 자매에게〉에서는 필리핀의 역사에서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신식민주의의 양상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외부에서 온 화자는 필리핀인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과 성모마리아조차 매매의 대상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으나 정작 "자기 씨앗 뿌릴 땅 한 평 없는 소작인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필리핀인들은 제국주의적 자본의 영향으로 인한 신식민지적 상황을 감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서 "하녀 유니폼을 입은 그대"는 중의적인 의미로써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실제로 "하녀 유니폼을 입은 필리핀 여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바보보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살고 있는 이 필리핀 여성은 국가가 처한 신식민지적 상황과 "너무 슬퍼서 슬픈지조차 모르는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가난과 억압을 구원해 줄 "주님"만을 찾고 있다.

> 달처럼 온순한 그대/ 순한 양의 그대가/ 바보보다 성실하게 친절하게/ 가난의 역사 억압의 역사/ 너무 슬퍼서 슬픈지조차 모르는 역사를 가냘픈 등짝에 지고/ 주님, 주님, 부르며 걸어갈 때/ 까닭모를 눈물이 내 두 눈을 적시네/ 하녀의 친절과 단순한 노동의 아름다움이/ 빼앗긴 사람들의 서러움을 감싸네/ 지금 살아남은 자들의 골짜기(고정희, 1992: 19).

연작시에 수록된 26편의 시들 중에서 이 시는 유일하게 필리핀 여성을 제목으로 한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필리핀 여성을 계속 "그대"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 이 시의 제목은 〈하녀 유니폼을 입은 자매에게〉로 화자는 "자매"를 "그대"라고 부르면서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의 역사", "억압의 역사", "너무 슬퍼서 슬픈지조차 모르는 역사"를 가냘픈 등짝에 지고 있는 그 "자매"가 자본주의와 신식민주의의 역사적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주님, 주님 부르며 걸어가는" 광경을 본 화자는 "까닭모를 눈물"이 난다. 이 "까닭모를 눈물"은 화자가 "하녀 유니폼을 입은 자매"에게 느끼는 안타까움에서 공감과 연대의 감정으로까지 확장된다. "단순한 노동의 아름다움"과 "빼앗긴 사람들의 서러움"이 평범한 "자매"의 일상생활에 배어있는 이곳이 바로 억압과 피지배의 신식민주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살아남은 자들의 골짜기"인 것이다.

조형 교수는 고정희가 1988년 『여성신문』 주간으로 일하기 시작한 즈음 여성운동의 독특한 방식으로 지니고 있던 생각 중 하나가 "자매애"임이 그가 쓴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글 곳곳에서 드러나 있음을 밝힌 바 있다(1993: 68-69). 특히 1988년 10월 28일 발간된 『여성신문』 제0호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제목은 "자매애는 강하다"로 고정희의 여성운동에 대한 신념은 곧 자매애에 대한 신념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주의 언론 매체인 『여성신문』을 시작하면서 고정희가 "자매애"에 대해 갖고 있던 철학과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자매애”가 “남자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주의 축을 옮기는 힘”의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조형, 1993: 64). 일 년 후, 『여성신문』을 청산하고 필리핀에서 만난 “하녀 유니폼을 입은 자매에게” 느끼는 고정희의 공감은 서러움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들이 살고 있는 “필리핀”이라는 공간은 그 깊고도 끔찍한 식민의 역사를 모두 통과하여 “지금 살아남은 자들의 골짜기”로서의 절박한 풍경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고정희가 “지금 살아남은 자들의 골짜기”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만났던 필리핀 자매들 중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 고정희의 ‘자기반성’을 이끌어 낸 인물도 있다.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허구성과 타락상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작업은 여섯 번째 시 〈악령의 시대,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앞에서 “아시아의 하느님”을 몰아낸 “자본의 하느님”은 이 시에서부터 “악령”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악령의 자본이 시대를 제패한 후” “안식의 밥”, “기다림”, “신념”, “인본주의”는 모두 사라져버렸고 “인본주의와 함께 신도” 죽었다. 그러나 이 악령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다. 당시 고정희가 느끼는 악령의 영향력은 세계를 통일할 정도로 점점 막강해지고 있다.

> 실로 달콤한 악령의 순풍이 불어와/ 우리들 슬픔의 촉각을 마취시키는 동안/ 악령태평천국 박제수술대에 누운 어린 영혼이/ 새 시대 주기도문을 받아 외우네/ 세계는 이제 악령의 통일로 가고 있네/ 지적이며 우아하며 또 귀족적인 환상으로 사랑으로(고정희, 1992: 21)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우리들 슬픔의 촉각을 마취시키”면서 세계를 통일하고 있는 악령의 모습이다. “지적이며 우아하며 또 귀족적인 환상으로” 다가오는 악령은 마침내 “사랑으로”까지 변모한다. 이에 대한 고정희

의 위기의식은 “어린 영혼”이 받아 외우고 있는 〈새 시대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는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새 시대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제6장의 〈주기도문〉을 패러디한 시로 고정희 특유의 강력한 풍자가 돋보이는 시이며 이 풍자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하여 패러디적인 기법을 차용하였다.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 계신 우리 자본님”에게 “가진 자의 힘을 악랄하게 하옵시매/ 지상에서 자본이 힘있는 것 같이/ 개인의 삶에서도 막강해지이다”라고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이 아닌 “자본님”의 영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도 막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 나날에 필요한 먹이사슬을 주옵시매/ 나보다 힘없는 자가 내 먹이사슬이 되고/ 내가 나보다 힘있는 자의 먹이사슬이 된 것 같이/ 보다 강한 나라의 축재를 북돋으사/ 다만 정의나 평화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지배와 권력과 행복의 근원이 영원히 자본의 식민통치에 있사옵니다(상향~)(고정희, 1992: 22).

이 시는 “새 시대”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먹이사슬”을 엮어내고 있는 “자본님”의 막강한 영향력이 작동한 결과가 바로 “강한 나라”, “자본의 식민 통치”임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희는 “자본님”이 생명력을 잃어야 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상향~”이라는 마지막 시어에서 확고하게 드러낸다. 이 표현은 제사의 축문에서 “흠향하시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흠향”은 이 모든 제의를 신이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제사의 형식에서 쓰이는 축문을 패러디한 후 다시 그 내용을 〈주기도문〉으로 패러디한 것이다(이은영, 2016: 281). 그러므로 이 “상향~”의 삽입은 이 시에서 사용한 패러디 기법 중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 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독자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정희는 필리핀 현지 경험에 기초한 시를 쓸 때 그 주제를 어떠한 시 형식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성 민중의 수난사를 위한 글쓰기로 "마당굿시" 장르를 발전시켰던 고정희는 중층적인 식민 역사를 갖고 있는 필리핀 민중들을 위한 새로운 시쓰기 형식으로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시' 형식일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다양한 실험적 양식의 시쓰기를 시도하였다. 즉 필리핀의 오랜 역사에 걸쳐 자본주의와 신식민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양상들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어떻게 '시'라는 문학형식 내에서 자유롭게 재현해 낼 것인가를 탐색했던 것이다. 그 결과 "방송대본" 형식을 차용하거나 아예 "증언"이나 "쪽지"라는 제목 아래 '시'보다 훨씬 폭넓은 글쓰기가 자유로운 산문 형식을 선호했다. 예를 들면 죽은 자의 부와 산 자의 가난을 대비시켜 빈부격차를 방송 취재형식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시 〈죽은 자들의 대리석 빌리지 풍경〉이나 "한 나라의 서럽고 억울한 근세사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코레히도 아일랜드 방문 후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코레히도 아일랜드의 증언〉, 또 "서구 대륙의 에이즈 파도가 엄청난 부피로 하선되고 하선되는" 푸에르토 갈레라 섬에서 본 광경을 기록한 〈푸에르토 갈레라 쪽지〉가 바로 이러한 분류에 속한다.

〈죽은 자들의 대리석 빌리지 풍경〉에서는 "필리핀 마닐라", "육만 여 평의 부지에/ 재산의 크기대로 치솟은 저 개인주택들은/ 어린이와 임신한 여자가 살지 않는 집"으로 "바로 중국인 묘지촌"이다. "산 목숨 대 여섯이/ 죽은 자의 경비를 철저히 서고" 있는 이곳에서는 "밥과 자본주의"의 관계가 "망자"인 중국인 자본가와 "산 자"인 필리핀 민중 사이에서 은밀한 협상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망자들이 산 자의 곳간을 책임지고/ 그 대가로 호화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바로 거래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필리핀 해외문화를 취재 중인 방송 리포터가 현지의 성묘객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차용하여 이들의 대화 내용을 시의 형식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대본 형식을 도입함으로써[5] 서로 입장이 다른 다성적 목소리를 어떻게 '시'라는 문학형식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나 자본주의 국가 필리핀에서 죽은 중국인 부자들은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망자들을 위한 호화 빌리지"를 선택하고 죽어도 죽지 않는 "밥줄을 틀어쥔 자"로서의 특권을 누린다. 바야흐로 "밥줄을 쥔 자가 만능인 시대"이므로 이곳에서는 "망자와 산 자"의 차이는 소멸되고 "밥줄을 틀어쥔 자"와 밥줄에 매달린 자의 관계만 남는다. 그러나 바로 지금 "죽은" 중국인 자본가와 "산" 필리핀 민중은 이 육만 평에 달하는 "죽은 자들의 대리석 빌리지"를 놓고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 여기서 방송리포터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부딪히는 필리핀의 현장 취재를 마치면서 결국 한국 내의 "재벌 망자님들", "독점자본 망자님들"에 대한 비판의 화살도 잊지 않고 있다.[6] 지금까지 아시아 각국에서 자본을 둘러싸고 망자와 산 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보여준 이 시의 끝마무리는 "(옹~헤~야~. … 민요)"이다. 이는 방송대본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필리핀 현장취재 방송과 가장 밀접한 주제를 갖고 있는 우리 민요를 선택한 결과이다. 결국 이 시는 방송대본 형식을 취함으로써 필리핀과 중국, 한국 등 아시아 3국에서 볼 수 있는 장묘문화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이 시 한편

---

5) 이 시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검게 광나는 리무진을 타고 지금 막 죽은 자의 시신이 운구되고 있는 마닐라 중국인 묘지 입구, 그 뒤로 벤츠와 캐딜락을 탄 조객들이 천천히 뒤따른다. 그러나 이곳에 봉분은 없다. 다만 거대한 대리석 빌리지가 있을 뿐, 간간이 남자들이 얼씬거린다. 어린이와 임신한 여자가 살지 않는다는 이 기묘한 마을에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댄다.)" 이러한 방송대본 형식의 차용은 비주얼한 광경을 독자들에게 가감 없이 보여줌으로써 언어만으로도 그들의 상상력 속에 "죽은 자들의 호화로운 대리석 빌리지 풍경"을 펼쳐놓는 역할을 한다.

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뉴스를 시청하시면서/ 나도 저런 곳에 묻히고 싶다 꿈꾸시는 재벌 망자님들,/ 황천신세 돼서까지 이고지고 누워서/ 자손들과 돈 협상 벌이시는 독점자본 망자님들,/ 불도저로 평치는 땅혁명 오기 전에/ 제발 마음 좀 비우십사!"

에 담아낼 수 있었다.

〈코레히도 아일랜드의 증언〉은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에 수록된 시들 중에서 매우 독특한 형식과 주제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1898년 필리핀을 점령한 미국의 침략전쟁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미군 병사와 여행자인 화자의 대화가 "죽은 자의 증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닐라 베이로 들어오는 유일한 출구였던 만, 그래서 잔혹한 침략군과 유격대가 들어오는 문"이었던 코레히도 아일랜드를 방문한 여행자인 "내"가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된 만 오천여 명의 전몰장병 위령탑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고히 잠들라, 아들아/ 자유를 위한 너의 투쟁의 임무는 끝났도다"를 음미할 때 갑자기 "묘지에 잠든 미군병사 하나가 벌떡 일어나 내게 말을 거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대화인 것이다. 이 미군병사는 "이 비문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 영혼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전몰장병인 자신의 증언을 새겨 "피 냄새로 오열하는 전쟁의 역사를 중단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 증언을 들은 "나"는 코레히도 아일랜드의 대리석 묘지에 아래와 같은 "새로운 비문을 적어" 두었다.

> 편히 잠들어라, 아들아/ 침략을 향한 너의 살육의 임무는 좌절되었도다/ 네 희생을 통해서 제국주의는/ 침탈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냈도다(고정희, 1992: 71)

이 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역사적 유산을 국가들 간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파악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전쟁에서 희생된 수많은 개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동시에 제국주의 편에 서서 싸운 "죽은 자의 증언"을 통해 제국주의가 인류에게 끼친 고통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들"의 몫은 코레히도 아일랜드의 "가장 슬픈 역사의 증언"과 "오고 있는 역사의 경계경보"를 가슴에 새겨 "피 냄새로 오

열하는 전쟁의 역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증언만 할 뿐 "오고 있는 시대를 책임지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푸에르토 갈레라 쪽지〉는 "히브리의 갈릴리 해변이 생각나는" 아름다운 섬 푸에르토 갈레라에서 목격한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와 신식민주의의 공모 양상을 고발하고 있다. "쪽지"라는 형식을 택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방편을 획득한 것이다. "망망대해 창파 한 가운데"에서 "무공해 기쁨 무공해 슬픔 무공해 밥을 어획고에 저장하는" 이 섬사람들에게 "누가 재앙을 밀반입 시킬 수 있을까"라는 화자 "나"의 질문은 어느 아침 이곳에서 "서구대륙의 에이즈 파도가 엄청난 부피로 하선되고 하선되는 것을 보았다"는 답으로 마무리 된다. 서구 제국의 식민지였던 푸에르토 갈레라 섬에서 본 광경, 즉 아시아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자본주의와 신식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적나라한 광경은 현재 시점에서 아시아와 서구 제국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젠더화하여 보여준다.

> 에이즈 혈청을 휴대한 백인 남자들, 배 위에 배 하나를 더 얹은 듯한 배불뚝이 남자들이며 백발이 성성한 늙다리 남자들이 젊고 가냘픈 아시아 여자들을 사타구니에 끼고 합법적인 윤간을 즐기는 동안, 아아 아시아 남자들은 문 밖에서 담배 같은 희망, 희망 같은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습니다(고정희, 1992: 44).

"백발이 성성한 늙다리 백인 남자들", "젊고 가냘픈 아시아 여자들", "문 밖에서 담배를 피워대고 있는 아시아 남자들"의 관계는 서구와 아시아를 엮고 있는 자본주의와 신식민주의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합법적 윤간"을 통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광경은 곧 과거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아시아의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자행했던 비극의 역사위에 중첩되어 화자인 "나"의 역사의식을 환기시킨다.

> 나는 문득 사이판이나 오키나와 섬으로 끌려가 수중고혼이 된 아시아 여자들이 남긴 비명소리, 아슬아슬한 절벽에 몸을 던지며 최후의 일성으로 외쳤다는 어머니~ 어머니~ 하는 울부짖음을 푸에르토 갈레라 파도소리 속에서 들었습니다(고정희, 1992: 44).

고정희는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 출판한 『여성해방출사표』 서문에서 "한국의 정치역사현실 속에서 "성억압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게 전개되어 왔는가"하는 출발점을 '원나라에 바쳐진 고려공녀 사건'에 두고 있으며 왜 정치하 위안부로 군수공장으로 끌려간 '정신대 여자 사건'을 그 정점으로 삼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나 나는 이 여성문제 시점에서 '고려 공녀 사건'과 '정신대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라고 자책했다(1990a: 6). 그러므로 필리핀 체류 기간 동안 이 두 사건은 그의 인식 속에 항상 맴돌고 있는 아시아 여성 "성억압"의 가장 대표적인 예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로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이루어진 1991년 8월보다 2개월 앞선 1991년 6월 9일 고정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이 〈푸에르토 갈레라 쪽지〉를 썼던 그 시점에는 '일본군' 위안부 이슈가 공식적 역사나 공적 담론 영역에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정희가 이 시에서 "사이판이나 오키나와 섬으로 끌려가 수중고혼이 된 아시아 여자들"이라는 구절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은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에 앞서서 '시' 형식 내에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정희의 필리핀 체류 경험에 기초한 자본주의, 신식민주의와 아시아 여성 민중의 "성억압"에 대

한 생각들은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긴 마당굿시 〈몸바쳐 밥을 사는 사람 내력 한마당〉에 집약되어 나타나 있다.

4. 호세 리잘: 필리핀 민족주의의 아버지

호세 리잘(Jose Rizal, 1861-1896)은 스페인 식민통치 말기인 1861년 마닐라 근교 칼람바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성 토마스 대학에서 의학(안과)를 전공한 후 1882년부터 1887년까지 유럽에서 유학했다. 또 유학기간 동안 스페인에 있던 "일스트라도(ilustrados, the enlightened, 계몽된 자들)"라고 지칭되던 젊은 엘리트 집단에서 활동했다. 특히 마드리드에서 격주로 발행되던 정기간행물 『라 솔리다리다드』(*La Solidaridad*)를 통해 계몽운동을 했는데 리잘은 이 지면에 수많은 글을 쓴 중심인물이었으며 이 때 발표한 그의 정치 에세이의 주된 내용은 필리핀인들의 권리와 자유, 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진보적인 아이디어 등을 담고 있다. 그는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상상의 공동체"로서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리잘은 두 편의 소설과 수많은 에세이 글을 발표하였다. 그가 쓴 두 편의 소설은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필리핀의 독립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의 사상과 비전을 은유적 기법을 사용하여 "소설"이라는 문학적 형태로 발표한 것이다.[7] 『상상의 공동체』를 집필한 베네딕트 앤더

---

7) 스페인 유학시절 3년에 걸친 집필 후 1887년 발표한 『놀리 메 탕헤레』(*Noli me tangere*)는 라틴어로 "사회적 암(The Social Cancer)"이라는 뜻이며 스페인의 식민통치가 얼마나 부패했으며 필리핀 민중들이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받는가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작품이다. 리잘은 현실적인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스페인 당국에 개혁을 요구하는 온건함을 보였지만 이 작품에서는 스페인 식민통치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의

슨(Benedict Anderson)은 국가 프로젝트와 인쇄 매체와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리잘과 리잘의 소설들을 예로 들고 있다(Anderson, 1991). 이는 앤더슨이 주장한 바, 즉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중간 계층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시간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통일된 집단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같은 인쇄 매체를 공유하는 것이 상상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그의 주장을 리잘이 이 두 작품의 발표를 통해서 "필리핀"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실제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8] 리잘의 두 작품은 필리핀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는 동시에 필리핀인들에게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매우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에서 리잘의 두 소설을 예로 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고정희는 이러한 필리핀의 국민 영웅, 호세 리잘을 발견하고 열광하였다. 1990년 11월 27일 '또 하나의 문화' 동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정희는 리잘 기념관을 방문하고 난 후 "스페인 요새 앞에 리잘 기념관이 버젓이 공존하는 모습이란 역사의 엄숙함을 되새기게 한다"고 적었다. 또 "그가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감방에서 남겼다는 시 'My Last Farewell'을 읽고 가슴의 격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피가 뿌려진 필리핀은 언젠가 반드시 에덴을 회복하리라. …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라고

"완전한 독립"이란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독립의 중요성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놀리 메 탕헤레』의 후속 편인 『엘 필리부스테리스모』(*El Filibusterismo*)는 1891년에 발표된 작품이며 "탐욕의 통치(The Reign of Greed)"라는 뜻이다. 이 작품에서는 1883년 파리 박람회 방문 이후 그의 반(反) 식민지적 상상에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이 더해져 열정적인 혁명가로서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즉 '평범한 개혁'이란 아이디어의 절대적인 허위성과 기만성을 폭로하면서 식민지배자들을 비웃고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설립(nation-building)과 관련된 중요 아이디어들이 포함되어 있다(연점숙, 2011: 1-21).

8) 앤더슨은 리잘의 『놀리 메 탕헤레』를 "현대 필리핀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평가하면서 "'인디오'에 의해서 쓰여진 거의 최초의 소설"이라고 덧붙였다(1991: 26).

했다(조형 1993: 48). 이어지는 고정희의 리잘 시 전문 번역은 4페이지에 달한다. 그는 "서러운 필리핀이 긍지로 삼고 있는 두 인물, 리잘과 막사이 사이를 가진 필리핀은 행복합니다"라고 이 편지를 끝맺는다. 1896년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전쟁 이후 산티아고 감옥에 수감된 35세의 리잘은 그해 12월 30일 오전 7시 지금은 리잘 공원이 된 바굼바얀 잔디밭에서 총살당했으며 그의 순교는 필리핀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가 총살당하기 전날 밤에 썼다는 시 〈나의 마지막 작별〉(Mi Ultimo Adios)[9]은 스페인어로 쓰여진 필리핀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리잘의 세계관, 조국관, 내세관, 애국심 등이 잘 드러남으로써 억압적 외세에 대해 보다 차원 높은 저항의 정신을 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는 고정희가 이 시의 번역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관점에서 호세 리잘의 가치관을 재해석한 시 〈호세 리잘이 다시 쓰는 시〉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정희는 부활한 리잘을 일인칭 화자로 등장시켜 "서러운" 필리핀의 참상을 보고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서른 다섯 내 짧고 팽팽한 생애/ 식민의 단두대에 주저없이 바쳤을 때/ 그대 위대한 혁명을 이뤘듯/ 그대 억압의 말발굽 벼랑 끝으로 몰아냈듯이/ 조국이여, 독수리 날 듯한 그 기상 다시 펼쳐/ 아시아의 하늘을 날아올라라/ 즈믄 섬에 펼쳐진 네 푸른 치맛자락/ 오 형제여 자매여/ 우리들의 싸움은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고정희, 1992: 78).

고정희의 시세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역사 인식"으로 역사의 흐름 속

9) 이 시는 리잘이 총살당하기 바로 전날 밤 여동생 트리니다드가 그를 마지막으로 면회하러 왔을 때 작은 램프를 건네주면서 그 안에 쪽지가 있다고 속삭였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70행에 걸쳐 쓰여진 이 시가 들어 있었다. 그 후 한 세기에 걸쳐 이 시는 65개의 외국어로, 또 49개의 필리핀 현지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연점숙, 2011: 2).

에서 소외된 자들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시쓰기 기법으로 차용한 방식이 바로 “역사적 인물의 현재성”이다. 따라서 고정희의 시에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위에 인용한 시 구절에서도 “식민의 단두대”에서 사라진 필리핀의 역사적 인물, 호세 리잘을 불러내어 “조국이여, 독수리 날 듯한 그 기상 다시 펼쳐/ 아시아의 하늘을 날아올라라”라고 외치게 한다. 이 때 고정희의 급진적인 저항 의식은 바로 “독수리” 이미지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비록 리잘은 미국이 1898년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기 2년 전에 사망했지만 고정희가 필리핀 현지에서 본 미국의 식민 지배의 폐해는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엠블럼에 새겨져있는 “독수리”를 등장시켜 비록 상상세계에서나마 필리핀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 듯한 그 기상”을 다시 펼쳐서 “아시아의 하늘을 날아올라라”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푸른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즈믄 섬”에 흩어져 있는 필리핀의 형제와 자매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들의 싸움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왜냐하면 “티 없이 맑고 부드러우며/ 다함없이 친절하고 따뜻한 필리핀의 융융한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던 아시아의 가나안”이 “부활의 역사”를 들어 올려야 하는 그 당위성을 주장한다. “수백 년 동안 짊어진 학살의 역사/ 대대손손 물려받은 자본의 시녀생활”도 “이제는 끝”이므로 그 묵은 뿌리를 뽑고 “우리는 살아있다 징소리 울려라”라고 식민 지배의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깨어있는 자기 각성”을 촉구한다. 이 때 사용되는 “징소리”는 잠자고 있는 식민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하며 이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의 “자기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식민 지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계층은 결국 여성과 어린이이므로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한 필리핀의 “자매는 흰둥이의 퍼킹머신”으로, 또 “어린이는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진 상태가 되어 버렸음에 탄식한다. 그러나 100여년 만에 부활한 리잘은 필리핀의 식민 의식을 깨우기 위한 "자기 각성"과 식민 역사의 극복은 이제 필리핀이라는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내 여러 국가들이 연대하여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함께 가자, 아시아인이여/ 우리는 이제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아시아인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이제 백인의 시대는 끝났으므로 "아시아인이 아시아인의 적이던 시대도 끝나야한다"면서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한다.

> 그리고 함께 우리 함께/ 꿈에도 그리는 평화의 시대를 우리 힘으로 열어젖히라/ 동방의 힘으로 동방의 빛으로/ 세계 해방의 등불을 밝히라/ 인류의 영혼이 아시아인의 품에 고이 잠들어 있나니(고정희, 1992: 81).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비록 부활한 리잘의 시적 발화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고정희 자신의 사고 범위가 어느 영역까지 확장되어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제국주의적 "침략"과 "독점자본의 칼"을 휘두른 서구 백인의 시대는 끝났으므로 이제는 "동방의 힘"이자 "동방의 빛"인 아시아인들에 의한 "평화의 시대"를 "우리" 아시아인들의 힘으로 열어젖히고 "세계 해방의 등불"을 밝히자고 제안한다. "인류의 영혼"이라는 보물은 아직 "아시아인들의 품에서" 꺼내보지도 못한 채 "고이 잠들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발휘하지 못했던 아시아인들의 저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펼쳐서 평화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쓰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정희의 아시아 공동체와 연대를 향한 비전은 호세 리잘의 목소리를 빌려 쓴 이 시의 말미에서부터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등장하며 그의 사고와 인식의 영역도 한국을 넘어서서 아시아로, 아시아로 확장되어 나아간다.

5. 아시아 공동체와 연대를 향한 비전

고정희는 필리핀에 머무는 기간 중 1991년 1월 4일부터 2주 동안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으며 그 여행에 대하여 “동남아 유적들을 살펴보는 일은 참으로 내게 의미가 컸어”라고 쓰고 있다(조형, 1993: 73).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여행하면서 동남아 각국의 식민 역사에 대해서 배우며 그것을 유럽 문화와 비교해 보는 것도 잊지 않는다. 동남아의 유적지에서 볼 수 있는 특권층의 민중억압은 그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할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그는 그러한 유적지에서 아시아 민중들의 슬픈 역사를 읽어낸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간” 인도네시아의 브로부도르 사원에서 오백 다섯 돌부처님을 마주했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와서 기원한 것은 결국 오랜 세월에 걸쳐 켜켜이 쌓인 “아시아의 슬픈 역사”라는 점을 알게 된다. 이 시 〈브로부도르 사원의 부처님〉에 오면 아시아, 자본주의, 신식민주의의 역사적 관계를 고발문학 차원이 아니라 비판적 재해석의 단계에서 바라보고 재평가하고 있다. 화자는 “하늘 난간에서 맨몸으로 고뇌를 잣고 계시는/ 돌부처님의 물레질 소리 속에서” 켜켜이 쌓여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역사가 “몰래 뿌려놓고 간 슬픔의 낟가리가” 되어 “물레 소리로 물레 소리로 물레 소리로/ 울고 있다”는 구절을 통해 과거 식민 지배의 역사가 오늘날 인도네시아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이어지는 시 〈손이 여덟 개인 신의 아내와 나눈 대화〉는 “어느 먼 나라 힌두교 대사원”에서 머리가 넷인 남성 신 위시누의 아내로 손을 여덟 개 갖고 있는 여성 신과 나누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남북 백성을 점지”하는 머리가 넷인 남성신 위시누의 아내가 팔이 여덟 개인 까닭은 “사면팔방 백성들의 마음을 보살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하, 공-사 역할

분리가 당신 시대 것이군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화자의 질문에 신의 아내는 "우리는 속세에서 버림받았"으며 "사원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고 대답한다. 화자가 또다시 "신이 버림받은 시대/ 인간 승리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오고 있는 역사는 언제나 개벽세상이고/ 와 있는 역사는 언제나 남자세상이었으니/ 이제 평등하지 않은 것은 종래 버림받겠지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힌두교 사원에만 갇혀있던 신의 아내조차도 앞으로 도래하는 세상은 "평등하지 않은 것은 종래 버림받"는 "개벽세상"이 될 것임을 예측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 역사는 언제나 남자세상"이었으므로 이제 곧 "남녀평등"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내비친다. 남녀평등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기대는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요원해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정희의 희망 섞인 기대는 명백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은영은 고정희의 시적 사유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매개체는 "공동체"였음에 주목하고 그의 시세계 전체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 중에서도 1990년에 발표된 8번째 시집 『광주의 눈물비』부터 시작되는 후기 시에 나타나는 특징은 "부정적 현실과의 치열한 투쟁과 저항을 자신의 임무로 하는 화자의 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후기시에 나타나는 공동체는 "역사의 비극을 말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2016: 262-263). 제국주의, 식민주의, 자본주의, 신식민주의로 얼룩진 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당한 역사"이며 아시아인들은 그 "당한 역사"가 고이 모셔져 있는 아시아의 박물관과 광장에 의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아시아의 혼"을 담지하고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고 외치며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정희의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바로 〈당한 역사는 잠들지 않는다〉이다. "마닐라의 아얄라 박물관에 들어서며" 필리피나가 "당한 역

사는 잠들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박물관에 진열된 필리핀의 피맺힌 식민 역사를 바라보던 화자는 "역사의 신경마다 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고 그 결과 "피묻은 탄피 하나를 가슴에 품었다." 이 때 필리피나와 필리핀 외부에서 온 아시아인인 "나"를 연결해주는 것은 바로 아시아의 혼을 상징하는 "피묻은 탄피 하나"이고 "나"는 이것을 가슴에 품어 내 몸의 일부로 간직한다.

그렇다면 이 시를 쓸 때 고정희가 상상했던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가치관과 이념에 근거한 것일까? 필자는 1984년 이후 그의 열정과 에너지, 신념을 함께 바쳐 일했던 여성주의 이념공동체 '또 하나의 문화'를 통한 고정희 자신의 경험이 큰 밑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문화'의 운동방식은 80년대 당시 여느 사회운동 방식과는 차별화 되어 "따로 또 같이" 하는 방식이다. 즉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성찰 작업을 바탕으로 개인적 자아의 변화 및 의식화 작업을 글쓰기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었고 특히 "활자 매체를 통해 새로운 상징과 기호를 사회구성원들의 마음과 뇌리 속에 각인"시키는 운동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10] 고정희는 '또 하나의 문화'에 동인으로 참여한 이후 "열린 태도를 가진 느슨한 공동체"로서 "또문"[11]의 운동 방식을 이해하는데 반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는 고정희 만이 아니라 많은 동인들이 체험하는 과정이었다. 고정희는 동남아시아의 유적지와 식민역사를 살

10) "80년대 여성운동 중에서도 가장 말석을 차지한 것"이 바로 "여성문학"이라고 평가한 이혜령은 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여성해방문학의 기치를 올린 것은 '또 하나의 문화'였으며 이는 여느 사회운동과는 다른 방식을 취했던 '또 하나의 문화'의 운동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발부터 사회운동과는 다른 운동 방식을 택할 것을 주장했던 '또 하나의 문화'의 여성운동의 방식과 지향 속에서는 필연적이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고 진단하였다(2016: 429-430).

11) 여성주의 이념 공동체로서의 동인 모임 '또 하나의 문화'는 흔히 줄여서 "또문"으로 지칭된다.

펴본 여행을 다녀온 후 1991년 1월 19일 또문 동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수록 또 하나의 문화 친구들이 소중스럽고 또 자랑스러워"라고 쓰고 있다(조형, 1993: 73). 남녀평등을 주요 논점으로 삼되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는 문화"를 지향하며 그 방법으로 "활자매체를 토대로 새로운 상징과 의미를 우리 사회에 심어보자"고 했던 '또 하나의 문화'의 운동 방식은 각 개인의 삶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곧 자기성찰을 수반한 의식화의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이혜령, 2016: 436-43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정희는 아시아의 식민 역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각 나라의 식민 역사를 성찰하고 각국 국민들의 의식화 작업을 통해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아시아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희가 구상하는 아시아 공동체는 "당한 역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식민 역사를 경험한 아시아 각국들이 각기 다른 과거 식민 역사에 대해 성찰하고 그 의미를 현재 시점에 되새겨서 자신들의 각오를 새롭게 한 이후에야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됨을 말레이시아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콸라룸푸르의 국립박물관을 들어서며/ 역사는 흐른다,고 말레이시아인이 내게 말했을 때/ 제국주의 신경마다 불이 들어왔다/ 잉글랜드 해적선 강탈 앞에/ 모자를 벗어든 사람들,/ 옆구리를 찔리고/ 가랑이를 벌린 여자들이/ 불타는 노을을 향하여 울부짖는 지점에서/ 아아아아. … 별들이 불을 끄고/ 우우우우. … 숲들이 쓰러지는 지점에서/ 나는 칼 맞고 쓰러진 땅의 피묻은 깃발 하나를 심장에 품었다(고정희, 1992: 116-117).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말레이시아 역시 20세기 초반에 국민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독립하였다. 그러므로 말레이시아인이 "역사는 흐른다"고 말했을 때 화자는 "제국주의의 신경마다 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한다. 수

많은 독립전쟁 사진들이 전시된 콸라룸푸르의 국립박물관에서 아시아 여성인 화자는 “옆구리를 찔리고/ 가랑이를 벌린 여자들이/ 불타는 노을을 향하여 울부짖는 지점에서” 말레이시아 여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공감함으로써 “칼 맞고 쓰러진 땅의 피묻은 깃발 하나를 심장에” 품게 되고 그 결과 말레이시아의 식민역사와 독립 쟁취 과정을 심리적으로나마 공유하게 된다.

아시아 박물관에 진열된 역사는 당시 지배 권력에 의해서 기록된 담론이다. 하지만 화자는 ‘과거’를 진열한 박물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광장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의 “메르데카” 함성을 마주하고는 식민역사를 극복하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아시아의 모습을 상상한다.

> 자카르타 메르데카 광장을 들어서며/ 당한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인도네시아인이 내게 말했을 때/ 망각의 신경마다 불이 들어왔다/ … / 아아 제 터를 빼앗긴 사람들이/ 두 손을 번쩍 든 지점에서/ 그러나 그러나/ 메르데카 … / 메르데카 … / 메르데카 … 합창이 지축을 흔드는 지점에서/ 나는 아시안의 피눈물로 얼룩진 독립만세 국기를 혈관에 실었다(고정희, 1992: 117-118).

메르데카 광장에서 마주한 인도네시아인이 “당한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화자는 네덜란드의 오랜 식민지배 역사를 환기할 수 있도록 “망각의 신경마다 불이 들어왔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 이후에도 잠시 동안 미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으나 현재 그들이 외치고 있는 “메르데카”[12] 함성이 지축을 흔드는 현장에서 화

---

12) “메르데카”는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어로 독립, 또는 자유를 뜻한다. 역사적으로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부유한, 번영하는, 강력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메르데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운동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을 지닌 용어였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영국의 식민통치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 및 운동 현장이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자는 "아시안의 피눈물로 얼룩진 독립만세 국기를 혈관에 실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외치는 "메르데카" 함성의 합창은 아시아의 뻗어나가는 미래를 상징하는 청각적 효과로 지금까지 구체적인 의미없이 들려왔던 "허허허허…", "하하하하…", "아아아아…", "우우우우…"와 같이 자포자기하고 암울한 소리와는 완연히 다르다. "메르데카" 함성의 합창은 아시아의 혼이 핍박받는 대상이 아니라 더 크게, 더 멀리, 더 높이 웅비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독립"과 "자유"의 뜻을 가진 "메르데카"를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광장의 구호로 불러낸 고정희의 글쓰기 전략은 바로 잊혀졌던 아시아의 정체성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시아인들의 온 몸에 새겨진 억압당한 역사에 대한 기억은 같은 아시아인인 화자의 "가슴에 묻어"지고 "심장에 품어"지며 "혈관에 기억"되는 동시에 아시아인들의 역사는 "메르데카. … 합창이 지축을 흔드는" 것처럼 미래로 확산되어 나아간다. 그러나 화자는 식민역사경험을 공유한 아시아 공동체의 시간성에 대한 기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이를 구현해내는 중심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서울"을 제시한다.

> 당한 역사는 잠들지 않는다,/ 당한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역사는 흐른다,
> 흐른다,고 나는 서울을 향해 깃발을 흔들었다(고정희, 1992: 118-119).

이 마지막 싯귀는 고정희 자신이 생각했던 아시아 공동체와 연대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아시아인이 지나온 역사는

매우 보편화된 구호였다. 메르데카 광장은 현재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두 곳에 있으며 특히 자카르타의 메르데카 광장 중심에는 국가 독립 기념관인 모나스(Monas)가 있다.

과거 식민 역사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로 연결된 차원 속에서 되새겨지고 끊임없이 극복되고 재형성된다는 진리를 “역사는 흐른다”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아시아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을 내세우고 있다. 여느 아시아 국가들처럼 서구 제국에 의한 식민 지배를 받지는 않았으나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아시아 공동체와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정희 사후 3년이 지난 1994년부터 〈5·18 기념재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프로그램은 아시아 민중들이 서로 연대하며 그 때 중심 역할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는 고정희의 꿈과 희망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실례이다.[13] 여기서 분석한 3편의 시 〈브로부도르 사원의 부처님〉, 〈손이 여덟 개인 신의 아내와 나눈 대화〉, 〈당한 역사는 잠들지 않는다〉는 유고시집의 제1부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가 아니라 제2부 연작시 〈외경읽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은영은 고정희가 이 시를 “외경읽기” 부분에 삽입한 이유는 “시에서 나타나는 제3세계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제국주의적인 담론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필자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2016: 283).

---

13) 현재 〈5·18 기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프로그램은 고정희가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에서 보여준 아시아 공동체의 실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매년 아시아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광주항쟁의 정신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5·18 기념재단, 2018).

6. “아시아의 페미니스트 시인” 고정희

지금까지 고정희의 유고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에 수록된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고정희가 바라본 아시아, 자본주의, 신식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정희는 필리핀 체류 이후 자본주의와 식민주의, 또 신식민주의에 점령된 아시아의 현실을 발견하고 ‘아시아 여성/민중’의 위치에서 아시아에 점철된 제국주의적 폭력의 역사를, 또 그 결과로 맞닥뜨린 신식민주의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아시아 공동체와 연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아시아의 페미니스트 시인”으로 변모해 나아갔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아시아의 주식인 “밥”과 서구의 지배적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해 나아갔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평등한 밥상문화에서부터 아시아의 혼을 섞고 싶었던 고정희는 서구 제국에 의해 “당한 역사”를 공유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연대하여 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해 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제국주의, 자본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로 얽혀 있는 아시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재평가하고 아시아인들의 일상생활을 희망을 갖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당한 역사는 잠들지 않는다〉를 통해 자신이 상상하는 아시아 공동체와 연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주의 시각의 핵심을 아시아 여성의 삶과 수난에서 찾게 되기”를 열망했던 고정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식민화된 대상으로 지배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 여성 민중들에게 깊은 공감과 서러움,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고정희의 필리핀 체류 경험은 그를 “아시아의 페미니스트 시인”으로 재평가할 수 있을 만큼 깊고 넓은 시세계로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필자가 고정희를 “아시아의 페미니스트 시인”으

로 호명하는 이유 역시 그가 아시아 여러 국가의 여성들이 경험한 자본주의와 신식민주의의 현실을 꿰뚫어보고 이러한 양상들을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그의 시에 담아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정희(1990a), 『여성해방출사표』, 서울: 동광출판사.

_____(1990b), 『광주의 눈물비』, 서울: 도서출판 동아.

_____(1992),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서울: 창작과 비평사.

또 하나의 문화(1985),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동인지 제1호,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_____(1987), 『여성해방의 문학』, 동인지 제3호,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박완서(1993), "고정희를 생각하며",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여성해방문학가 고정희의 삶과 글』, 조형 외 엮음,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37-244쪽.

연점숙(2006), "(신)식민현실 대응 기록으로서의 필리핀 문학", 『인문학연구』, 제10호, 95-116쪽.

_____(2011), "Jose Rizal's Nationalist Novels, *Noli and Fili*: The Anti-colonial Imagination", 『아시아연구』, 제14권 3호, 1-21쪽.

이소희(2013), "고정희 글쓰기에 나타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 연구: 80년대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영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0권, 221-320쪽.

이은영(2016), "고정희 시의 공동체 인식 변화 양상", 『여성문학연구』, 제38호, 257-289쪽.

이혜령(2016), "빛나는 성좌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제47집, 409-454쪽.

조옥라(1993), "고행의 수도승, 우리 모두의 친구 고정희",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여성해방문학가 고정희의 삶과 글』, 조형 외 엮음,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45-255쪽.

조형(1993), “제1부 편지글을 통해 본 고정희의 삶과 문학”,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여성해방문학가 고정희의 삶과 글』, 조형 외 엮음,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37-76쪽.

Anderson, B.(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ng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Verso.

〈인터넷 자료〉

5·18 기념재단(2018),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http://www.518.org(검색일: 2018.04.20).

(논문 투고일: 2018.04.30, 심사 확정일: 2018.06.06, 게재 확정일: 2018.06.25)

〈Abstract〉

Asia, Capitalism and Neo-colonialism in the Serial Poem *Bab and Capitalism:* From an Asian Feminist Perspective

Lee, So-Hee*

This paper explores Goh Jung Hee's serial poem with 26 sections, *Bab and Capitalism*,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of Asia, capitalism, neocolonialism and female sexuality. The most creative and noteworthy ideas in the poem are her main 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n colonial capitalism and Asian basic food, *bab*(rice). The paper argues that Goh Jung Hee indicts American colonial capitalism for its immensely powerful and harmful influence on contemporary Filipino culture and the subjectivity of Filipino people. Furthermore, she extends this approach to the colonization history of other Asian countries, in terms of Asian women's sexuality and suffering induced by capitalism and neocolonialism. Despite the fact that the current neocolonial reality is not without problems, Goh Jung Hee hopes for Asian solidarity and community, anticipating a hopeful future for Asia and the Asian spirit, through overcoming its history of colonization and neocolonial capitalism.

Key words: Goh Jung Hee, *bab* (boiled rice), Asia, capitalism, neocolonialism

*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Hanyang Women's University